

짐통 더위에 비행기 갑힌 승객 일부 '실신'



▲ 구급 대원과 승무원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원 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thetreet.com

화씨 111도(섭씨 44도)가 넘는 짐통 더위에 이륙이 지연된 비행기 안에 갇힌 승객들이 에어컨 없이 4시간 넘게 대기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20일 ABC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의 애틀랜타행 여객기의 이륙이 약 3시간 지연됐다. 이에 폭염에 에어컨

도 작동하지 않던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 일부가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스뉴스에서 현장 프로듀서로 일하는 크리스타 가빈은 사건 당일 트위터에 "화씨 111도 날씨에 뜨거운 비행기 안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앉아있었다."라며 "기내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승객 중 최소 5명이 쓰러져 실려 나가는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가빈은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다고 중간에 공지했으나, 내리게 되면 애틀랜타행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많은 승객이 비행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승객들은 4시간 가까이를 더위 속 기내에서 버텨야 했고, 급기야 승무원까지 쓰러지며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항공사 측은 항공편을 취소시켰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 키우려던 농부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송아지 7마리를 키우려던 중국 농부가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 하루 만에 포기했다.



▲ 송아지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다(왼쪽). 밖으로 끌어내 트럭에 실은 송아지들. 사진=thecover.cn

지난 2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서부 쓰촨성 농촌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10~20kg 정도 나가는 송아지 7마리를 키웠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웃 주민들이 소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악취가 진동한다며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송아지 7마리를 모두 밖으로 끌어냈다.

공무원들이 송아지를 밖으로 끌어내자 주인은 이를



그러나 주민들은 닭과 소는 차원이 다르다며 관공서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송아지들이 불쌍할 뿐이다"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 것은 불림 없다" 등의 댓글을 달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다시 아파트로 데려가려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송아지를 모두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닭을 키우는 등 농촌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SCMP는 전했다.

아찔한 '절벽 카페' 인기



▲ 절벽 카페 좌석에서 커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shine.cn

돌산 절벽에 위치한 이색 카페가 젊은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이 '절벽 카페'는 중국 구이저우성 남부에 위치한 쉰난부이족마오족자치주 리보현의 돌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은 398위안(한화 약 60달러)으로 비싸지만,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절벽 카페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산림 전문가의 지도 하에 전문 장비를 착용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원시림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후 70층 높이의 산을 오른 뒤 다시 20m 가량 절벽을 타고 이동해야 카페에 당도할 수 있다. 커피값에는 사실상 절벽 등반 비용이 포함된 셈이다.

카페 관계자는 "커피값에는 각종 장비 대여료와 인솔자 인건비,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중 100kg 이상 고객은 받지 않으며 1인당 최대 1시간까지만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사진 속에서 카페 손님들은 안전벨트, 헬멧, 등산화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연결된 채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해당 카페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팬데믹 사태로 인해 폐점했다가 지난 6월 다시 개점했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관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Blvd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